

LASI-Asia 2016 개회 및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한석수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학습 분석 분야 국제 컨퍼런스인 LASI-Asia 2016의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이 행사가 성황리에 개막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신 국가기술표준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국제학술단체와 국제표준화기구의 단체장 및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패널토론을 위해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연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ISO/IEC의 교육 기술 위원회인 JTC1/SC36, SoLAR,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과 같은 훌륭한 국제단체와 공동으로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점은 우리 KERIS로서도 매우 영예롭고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지난 3년 간 수행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공유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LACE 프로젝트 연구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LASI-Asia를 계기로 학습 분석 분야의 국제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지능 정보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 바다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날마다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팎에서 일어나는 많은 학습 활동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고,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들도 그러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습 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자 학문 분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와 지역에서 이견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프라이버시 이슈와 데이터 통제에 관한 쟁점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양일 간 개최되는 컨퍼런스 기간 중에 그 간의 연구 성과와 성공적인 제품화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쌓은 지식을 공유하고 학습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KERIS 연구진이 저에게 "학습 분석"에 대해 보고할 때 "이 개념은 학습자를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학습자를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그의 수준과 상황에 적합한 학습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상적인 듯 들리면서도 이해하기 무척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와 우리 KERIS 연구진은 어렵고 복잡한 이 기술과 학술 분야가 '우리 학생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아주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더해서 '선생님과 부모님이 우리 학생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기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KERIS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문샷싱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은 변화에만 주목하지 말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과감한 도전과 발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학습 분석은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만족스럽지 못한 지금의 교육 현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샷싱킹"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한국에서는 구글의 알파고와 프로 바둑 기사 간 대결이 큰 이슈였습니다. 우리는 짧게나마 인공지능시대의 한 단면을 목격했으며, 교육 분야에서 어떤 대비들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습 분석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기술과 얼마나 밀접한 분야입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방하고, 권고를 해주는 행위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능정보사회에서 학습 분석 분야는 더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학습 분석은 곧 교육 분야의 주류 기술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지능정보사회에 어울리는 교육환경, 즉 창의성, 인성, 감성과 같은 인간 고유 능력을 더욱 배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준비하고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걸맞는 교육 시스템과 기술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KERIS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LASI-Asia를 함께 조직해주신 국제단체 및 전문가들과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LASI-Asia 2016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쪼록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학습 분석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 그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19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 석 수